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해고 감소 흐름 멎고 저위권 안에서 소폭 반등, 영향은 미미

2026.09.04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해고 완화 흐름 멎고 저위권 안에서 미세하게 상방 전환

8월 29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주(수정치 20만 4천 건)보다 2천 건 늘었다. 4주 이동평균도 20만 7,250 건으로 1,500 건 올라 주간치와 추세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던 해고 감소 흐름이 이번 주로 멎었다는 뜻이다. 다만 수준 자체는 여전히 낮다. 전년 동기(23만 6천 건)보다 3만 건, 4주평균도 전년보다 2만 3천 건 낮아 해고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잔잔한 구간에 머물러 있다.

표면 숫자를 뜯어보면 별도의 악재가 새로 생긴 건 아니다. 비계절조정 신규청구는 전주 대비 사실상 변화가 없었는데, 계절적으로는 소폭 줄어드는 게 정상인 주였다. 즉 계절적으로 줄었어야 할 주에 줄지 않은 것이 계절조정 헤드라인이 오른 이유 그 자체이며, 별개의 두 번째 악재가 겹친 게 아니다. 계속청구(재취업 대기자 수)는 그림이 더 엇갈린다. 계절조정 기준 주간으로는 늘었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전주 수치가 밑으로 수정되면서 생긴 기준선 효과이고 실질 증가는 크지 않다. 반면 4주평균은 오히려 줄었고 비계절조정치도 전년보다 크게 낮아, 재취업 여건이 정말 나빠지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보험적용 실업률도 1.2%로 전주와 동일해 이번 계속청구 증가가 실업률 지표를 움직일 크기도 아니다.

현재 시장·정책 국면은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가 3.3%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적인 국면(스태그플레이션 레짐)이다. 이 틀에서 보면 해고 축의 이번 미세한 이완은 임금·물가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소폭 호재로 읽을 수 있다. 다만 강도는 미미해 실질적으로는 중립에 가깝다. 증가폭이 노이즈 수준이고 레벨 자체가 전년을 크게 밑돌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판단을 흔들 만한 냉각 신호는 아니다. 실제로 시장은 9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상 가능성을 66%로 반영하고 있어(동결 34%, 인하 0%), 이번 해고 지표 정도로 이 인상 우세 프라이싱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볼 부분은 두 가지다. 신규청구 4주평균이 향후 2~3주 연속으로 더 오르며 저위권을 벗어나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와 이번 상승이 일회성 요동으로 정리되는지가 첫째다. 둘째는 오늘(9/4)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로, 채용 동결 여부 등 채용 측 악세 가설을 판정할 핵심 자료는 이번 주간 자료가 아니라 그쪽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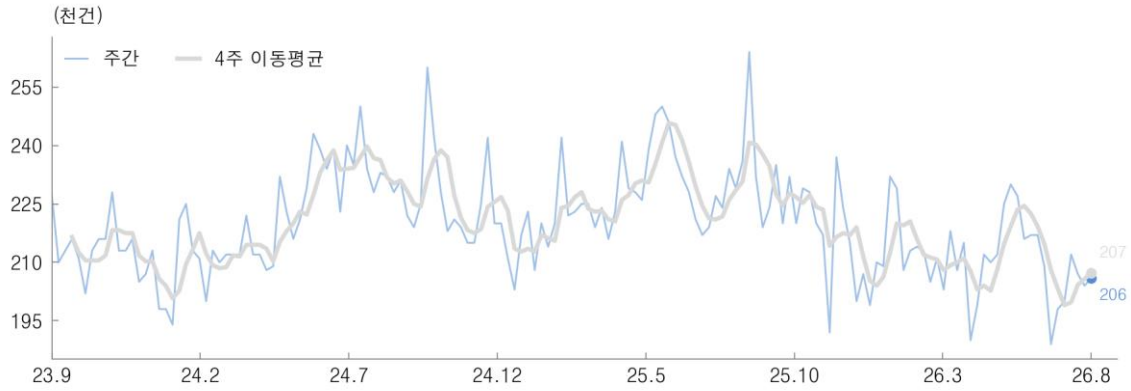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3 (이번)	8월 29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늘면서 몇 주간 이어지던 해고 감소 흐름이 멈췄다. 다만 증가폭은 저위권 안에서의 미세한 진동 수준에 그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하는 현재 시장 국면에서 정책 판단을 흔들 만한 신호는 아니다.
2026-08-27	8월 22일로 끝난 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줄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고 경로에서 노동시장이 느슨해지는 신호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2026-08-20	8월 15일로 끝난 주간 기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줄었지만, 더 신뢰할 만한 지표인 4주 이동평균은 19만 9,750 건에서 20만 4천 건으로 오히려 4,250 건 올라섰다. 총량 자체는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저위 구간에 머물러 있으나 방향은 소폭 위쪽으로 꺾여, 이번 주 발표는 '저위 구간 안에서의 완만한 상
2026-08-13	8월 8일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9천 건으로 전주 수정치(20만 건) 대비 9천 건 늘었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은 19만 9천 건으로 전주와 완전히 같아 노동시장 냉각 신호로 단정하기는 이른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지표 (8월 29일 주 기준)				
지표	이번 주	전주(수정치)	변화	전년 동기 대비 맥락
신규청구(계절조정)	20만 6천 건	20만 4천 건	+2,000 건	전년 23만 6천 건보다 3만 건 낮음, 저위권
4주 이동평균(신규청구)	20만 7,250 건	20만 5,750 건	+1,500 건	전년 23만 500 건보다 2만 3,250 건 낮음
신규청구(비계절조정)	17만 626 건	17만 596 건	+30 건(+0.0%)	계절적으로는 감소 예상됐으나 보합, 전년 19만 6,712 건보다 낮음
계속청구(계절조정)	177만 9천 건	177만 1천 건(수정)	+8,000 건	전년 193만 7천 건보다 낮음, 전주 수정으로 증가폭 확대
4주 이동평균(계속청구)	178만 1,750 건	178만 6,750 건	-5,000 건	전년 194만 4,500 건보다 낮음, 신규청구와 반대 방향
계속청구(비계절조정)	173만 7,781 건	177만 1,006 건	-33,225 건(-1.9%)	전년 189만 2,212 건보다 낮음
보험적용 실업률(계절조정)	1.2%	1.2%	동결	전년 1.3%보다 낮음
연방공무원 신규청구(UCFE)	337 건	390 건	-53 건	전년 515 건보다 낮음, 헤드라인 설명 못할 소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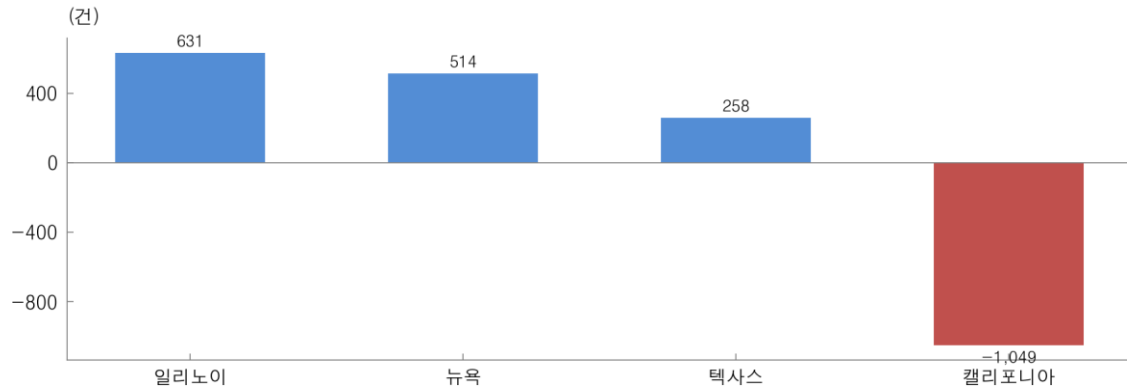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4주 이동평균(건)	207250
전주대비(건)	2000
계속 실업청구(건)	1779000
신규 실업청구(건)	20600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주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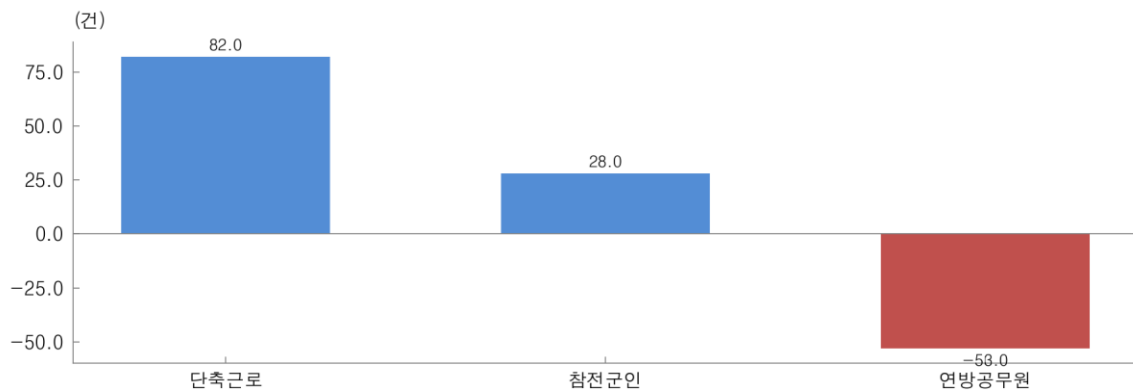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지역별 신규청구 변화(8 월 22 일 주, 원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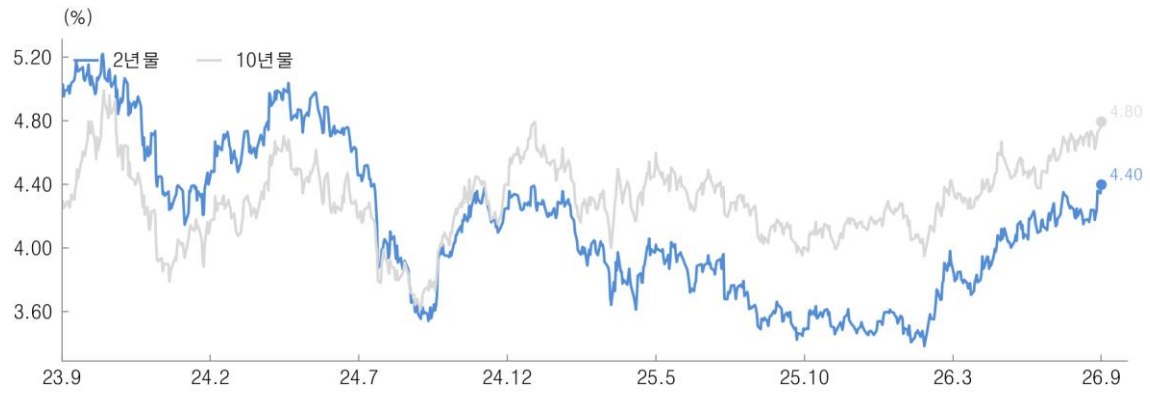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특수요인 프로그램별 주간 증감(8 월 29 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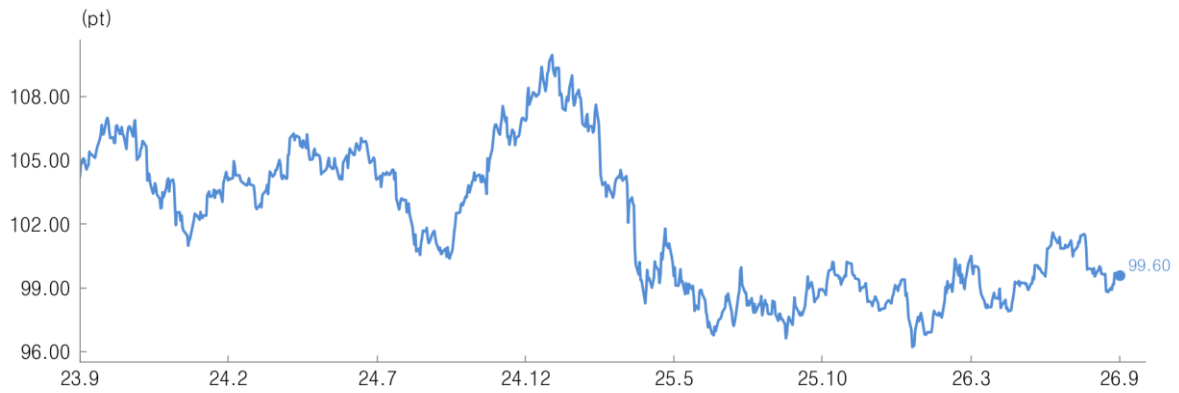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